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8호 【루계 제2549호】

주체108(2019)년 7월 6일 토요일 음력 6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30일 오후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여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판문점상봉요청의사가 세상에 전해진 순간부터 극적인 사변이 이루어진 순간까지 하루 남짓한 시간동안 온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에로 집중되고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하였다.

30일 오후 전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각을 나서시여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분리선앞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66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력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120여일만에 또다시 만난데 대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대통령을 안내하여 판문점 우리측 지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앞에까지 오시여 다시한번 손을 잡으심으로써 미국현직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령토를 밟는 력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환담을 나누시며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문재인대통령이 《자유의 집》앞에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력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단독환담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2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만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리용호외무상, 상대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이 참석하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에까지 나와 따뜻이 바래워드리였다.

조미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굳게 닫겨있던 판문점 분단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력사를 뛰여넘을 세기적인 만남을 이룩한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된다.

본사기자

불멸의 친필, 통일의 앞길을 밝혀준다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아가는 격동적인 시대에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력사적인 통일문건에 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있다.

《김 일 성
1994. 7. 7.》

판문점에 모셔진 친필비의 이 글발을 마음속에 새겨보느라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둔 그 무렵 어느 한 나라의 정객을 만나신 자리에서 자신께서는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 좋게 해결하려 한다고, 잘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이 머지않아 이룩될수 있다고 그토록 확신에 넘쳐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한평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던 그때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온 겨레를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확고부동한 조국통일의지와 천리혜안의 예지,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있던 때에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61(1972)년 5월초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고위정객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될 조국통일3대원칙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고 하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두달후인 7월 4일 전체 조선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평양과 서울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골자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를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당시의 광경에 대하여 남조선 언론들은 《온 민중들의 표정은 남북분단의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것을 보는듯 경악과 흥분속에 휩싸여있었으며 온 거리가 술렁이고 일터마다에서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였고 곳곳에서 〈와!〉 하는 함성과 놀라움이 겹친 환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7.4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장》, 《자주통일의 거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제시하시고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현명한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내놓으시여 겨레에게 통일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밤이 되면 남녘인민들의 생각이 더 난다고, 분렬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깊어가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생신날마저 쉬지 않으시고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군 하신 수령님의 로고를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녘겨레와 해외동포들이 있었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따뜻이 포섭하여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품을 찾아 남조선과 해외에서 각계층 동포들이 평양을 찾아왔다.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한 해외동포녀류기자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겠는가고 말씀드렸었다.

그이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가슴후련하게 대답을 주시였다.

어느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는가고 의문이 실린 말씀을 올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고매한 인덕에 의해 최홍희, 문익환,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한 해내외의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였다.

분렬된 조국의 상처, 겨레가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수령님이시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남기시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를 모시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곳을 찾으시여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대범한 결단과 넓은 포옹력, 숭고한 민족애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여 조선반도에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대통령과 상봉과 회담을 하시여 뿌리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을 마련하시여 온 겨레와 세인을 격정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또다시 이루어진 세기적인 만남을 감격속에 지켜보면서 우리 겨레는 판문점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을 가슴뜨겁게 다시금 새겨안았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친필은 더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며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도량과 포옹력은 천태만상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널리 헤아릴수 있는 호방하고 웅심깊은 인품이고 아량있게, 너그럽게 대하는 인력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대성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사상과 정견, 당파와 신앙, 생활경위가 어떠하든 손을 잡으시고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이 짙어가던 주체37(1948)년 3월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도량과 포옹력에 의하여 초청장은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에게도 전달되게 되였고 얼마후 그의 의중을 안고 《특사》가 평양에 오게 되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김구의 《특사》는 그이께 김구선생이 평양에 와서 장군님과 만나겠는데 과거를 백지로 해주실수 있겠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즉석에서 좋다고, 백지다라고 쾌히 답변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김구의 평양행이 이루어지였다. 김구가 평양에 체류한 나날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크나큰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인품에 매혹된 그는 수령님에 대한 신뢰심을 금치 못해하며 《반공》으로부터 련공합작에로 인생전환을 하게 되였다.

김구뿐이 아니였다.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조완구, 최동오선생들을 비롯한 우익정객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덕에 감화되여 참된 애국의 길, 보람찬 인생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애국애족의 량심이 마음 한구석에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의 차이도, 먹물같은 과거지사도 백지화하시고 포섭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도량과 포옹력은 민족대단합이라는 거목을 무성하게 자래운 비옥한 대지였다.

문선명 세계평화련합 총재의 평양방문도 민족대단합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된것도 비극인데 우리 민족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 마당에서 과거의 잘못을 가릴게 있는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경륜과 넓은 도량에 의해 그는 북녘에 있는 고향땅을 밟아보게 되였다.

너무도 꿈만 같이 조국을 방문하여 친척, 친우들과 상봉하고 공화국의 현실을 실감한 그의 심경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감개무량하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석상에서 주석님께서는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본인을 넓으신 도량과 아량으로 초청하여주시고 친히 만나주시였는데 이것은 보통용단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참사랑과 인격이 매우 위대하다고 자기의 흥분된 소감을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그리고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력하게나마 다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민족애에 감복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겨레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안은 민족성원들가운데는 남조선의 문익환목사, 재도이췰란드동포인 윤이상음악가, 재미동포 김성락목사, 재미동포 문명자녀류기자 등 각이한 직업과 정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조국애, 민족애가 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업적을 남긴 위인들과 명인들이 많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천하를 품어안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시고 겨레에 대한 사랑으로 한생을 깡그리 불태운 그런 위인은 없는것이다.

하기에 한 해외동포는 위대한 주석님의 정치는 배달의 피를 이어받고 애국심의 한쪼각이라도 남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대망의 넓은 품의 정치이다, 그분의 정치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주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닌 청탁병탄의 대하와 같은 정치이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망을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리 설

《인민행렬차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람들속에서 인민행렬차라는 말은 너무도 귀에 익은 말이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적령도와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결부하여 부르는 인민행렬차.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애민헌신을 생각하느라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매한 인민적풍모가 비껴있는 인민행렬차표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에 뜨겁게 마쳐온다.

주체78(1989)년 9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이딸리아의 언론인 피오레를 만나시였다.

그때 피오레는 장편기록영화 《조선—신비와 영광》을 만든데 이어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인민들속에 들어가 활동하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청을 쾌히 들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은 혁명의 기본동력이라고, 인민대중을 어떻게 각성시키고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때문에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별의별 일을 다했다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이전에 혁명운동을 할 때 농촌에도 많이 가군하였는데 농촌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들이 제문을 써달라거나 대서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군 하였다고, 제사를 지낼 때 《유세차》 하는것처럼 제문에는 일정한 틀이 있어 정해진 투로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군중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정 그런것들을 다 배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명의 청년학생들과 같이 농촌마을에 나가 활동하시면서 어느 한 집에 류숙하신 일이 있었다.

하루는 집주인이 조부님의 제사날이라고 하며 선생님들이 제문을 써주시면 새날을 잡아 제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차광수도 그렇고 계영춘도 역시 제문에는 통 소경이였다.

바로 그러한 때 불일이 있어 다른 고장에 가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정이 되여 그 집에 들어서시였다.

그들로부터 전후사연을 자초지종 다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제문에 막혀 쩔쩔 매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품을 팔겠으니 그대신 값은 톡톡히 내야 한다고 유쾌하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주인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써주신 제문을 놓고 제를 지내게 되였다.

그 일을 놓고 계영춘과 마주앉은 차광수는 오늘일을 교훈으로 삼자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자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것을 꼭 명심하자고 약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그때 차광수가 바로 말했다고, 혁명가들이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자면 세상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박다식, 다재다능 이것은 인민행렬차를 타고가기 위한 차표와 같은것이라고 하시며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피오레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말씀올리였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다박다식, 다재다능 그것은 인민행렬차를 타고가기 위한 차표와도 같다는 말씀은 오직 주석각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인민들을 찾아가신 그이의 발자취는 나라의 북변의 탄광, 광산마을로부터 동서해의 작은 포구와 외진섬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 인민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어린 인민행렬차는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을 전하며 오늘도 쉬임없이 달리고있다.

리송건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주체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 낯을 익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게 된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문선명총재는 그이께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1972년에 남측과 함께 발표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립각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밑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의 핵

주체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때 회담에서는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선언의 핵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측당국자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통속적이고 뜻이 깊은 통일리념이였다.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주체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2018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뜨거운 민족애와 자주통일의지, 넓은 도량이 자자구구에 어려있는 신년사는 내외에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대전환을 위한 현명한 방략을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여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오르던 조선반도정세는 화해와 평화에로 극적으로 전환되고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시 초

만대에 길이 전하라 불멸의 글발이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5돐에 즈음하여—

아, 통일친필비여!

김 송 림

그리움이 나를 이끌어 예 섰는가
그리움이 사무쳐 내 여기 찾았는가
판문점 통일친필비앞에 서니
아침노을에 물들어 붉게 타는 글발
숭엄히 어려오누나

청신한 이슬을 머금어
생생히 살아오는 뜻깊은 글발이여
어버이수령님 한자한자 써가시던
7월의 그 붓을 마음에 소중히 잡고
내 조용히 불러보나니

《김 일 성
1994. 7. 7.》

삼삼해라 잊을수 없어라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그리도 확신에 넘쳐 격정에 겨워
수령님 환한 미소 지으시던 7월 7일

수령님의 통일한생이 응축된 글발
갈라진 겨레 동강난 삼천리를 두고
기울이신 심혈 심려도 많으셨던
그 천만날을 다 말해주는 글발
아, 심장의 마지막박동마저도
통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

어이 다 헤아릴수 있으랴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한 친필의 위대한 뜻을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로고
필생의 뜻과 의지가 다 어려있는 글발이여

오늘도 래일도
겨레의 앞길에 길이 빛을 뿌리리
판문점에 솟았어도
8천만의 가슴에 솟아있는 통일친필비
수령님 통일업적으로 불멸할기념비여!

불 타 는 7 월

리 철 준

찌는듯 한 무더위로 대지를 달구며
7월은 이 땅에 온다지만
아니여라 7월은
생각도 많은 겨레의 마음에
간절한 그리움 싣고 찾아왔어라

세월이 고이 간직한 사연
겨레가 두고두고 전하는 이야기
다시 더듬자니 눈물이 앞서는구나
25년전 7월 수령님 영상이
자꾸만 못견디게 떠올라

분렬력사에 처음 있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
팔순의 고령이신 우리 수령님
무더운 7월뒤로 회담을 미루시기를
절절히 간청했건만

일없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일인데
건강은 무슨 건강인가고
회담을 빨리 하자는데 대해선
조금도 반대가 없다고
날자를 하루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통일이 빨라진다 하신 수령님

아, 한시라도 늦추면 분렬은 그만큼 길어져
불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신 수령님
통일은 가장 큰 필생의 념원이였기에
수령님 한몸 불처럼 태우셨다
성스런 한평생의 그 마지막날까지

오로지 하나가 된 조국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쳐오신 수령님
그 위대한 생애에 어린 천만헌신
가슴을 울려 정녕 못 잊어
더더욱 눈물젖는 우리 겨레이다

오, 이 땅의 7월은

여름밤의 이야기

김 영 일

초목도 깊은 잠에 들어 이슥하고
어디선가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소리
바야흐로 다가올 북남최고위급회담
수령님 마음에 그려 잠 못 드신
밤, 7월의 밤

그날밤 수령님 들려주시였어라
칠월칠석이야기 견우직녀전설을
옛적부터 전해오는 그 전설
한밤의 고요를 흔들며 펴가시는
수령님 안광엔 하늘의 은하수 비끼는가

아픔속에 눈물속에 갈라진 견우와 직녀
한해에 한번 있는 상봉마저도
은하수 건느지 못해 가슴태운 이야기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 있어
기쁨속에 서로 만났다는 이야기

력사속에 전해오는 그 전설
하다면 수십년 한겨레 한피줄이여도
수령님의 불같은 통일념원
그 성스러운 생애로 불타거니
그 한생에 끓어번진 통일의 열로 뜨겁다
통일의 열풍 삼천리에 휘몰아쳐갈
겨레의 맹세로 7월은 불탄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민족의 비극
가슴찢는 아픔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통한의 그 력사를 끝장내시려
통일의 대용단 내리신 어버이수령님
말해보라, 세월이여
덧쌓이는 분렬의 해와 달 두고
그리도 마음을 많이 쓰신
그런 밤 그이 평생에 그 얼마였던가를

무수한 그 많은 밤들이 모이고 모여
7월의 여름밤에 닿은것 아니더냐
저주로운 분계선을 들어내치고
우리 겨레 기쁨속에 얼싸안을
통일의 환희 수령님 그려보신 7월의 여름밤

수령님 들려주신 7월의 그 이야기
뜨겁게 전하며 은하수 비껴흐르는가
수령님 통일위해 쌓으신 그 은공
길이 전해갈 여름밤이야기여

축복의 미소 환히 지으시리

김 태 룡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두고
추억을 덮는 망각의 이끼라 했던가
해와 달 세월은 가도
겨레가 오늘도 되새겨보는
수령님 간곡한 음성 가슴을 치거니

—통일만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소

아, 얼마나 통일을 바라시였으면
그리도 가슴울리는 진정 터놓으시였으랴
얼마나 하나가 된 조국 그리우시였으면
되돌릴수 없는 10년의 젊음
그 뜻깊은 말속에 얹어보시였으랴

깊어가는 분렬의 한해 또 한해가
수령님 심중에 어떤 아픔이였던지
갈라진 민족의 고통 헤아려 잠 못 드신
수령님 심혈의 날과 달 그 얼마였던지
묻노니, 겨레여 우리 다 알았던가

고령의 년세에도 멈춤이 없었던
그 많은 밤길, 새벽길 통일에 닿아있었고
꺼질줄 모르는 불빛아래서
끝없이 깊어가던 그 모든 사색도
겨레의 운명을 소중히 쓰다듬지 않았더냐

못 잊을 7월의 그날에도
겨레에게 안겨줄 통일세상 그리며
불멸의 친필 통일문건우에 남기시고
새날을 맞으셨을 그이의 위대한 영상
우리는 가슴에 영원히 안고산다

흘러온 세월만을 추억깊이 울려주던가
그토록 절절이 뇌이시던 수령님 음성
기어이 열어갈 통일의 앞길에
끝없이 울려 삼천리를 울려
겨레의 심장을 끓게 하여라

수령님 걸어오신 통일려정우에
평화번영의 새시대 줄기차게 이으시며
겨레를 이끄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따라 화해, 단합의 새 력사 노도쳐 흘러
삼천리는 통일감격 환희롭게 맞으리니

오, 그날 통일의 그날이 오면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시며
온갖 로고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무궁한 통일조국의 미래 축복하시며
세월의 한끝까지 환한 미소 지으시리

북남선언, 그 기치따라!

김 윤 식

피눈물 서린 분렬의 비극 끝장내시려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 펼치시려
우리 원수님 가신 판문점에로의 길
그 길은 수령님 한생에 력력한
통일의 그 자욱 이어가신 력사의 길

어찌 다 알수 있으랴
봄날에 가시여도 원수님 심중엔
7월 7일 잊지 못할 그날이 있었으리
가슴깊이 타번지는 그리움
수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가시였으리

통일은 바야흐로 다가왔다고
수령님 격정의 미소 지으시며 남기신
거룩한 친필이 새겨진 판문점
오, 그 판문점에서 원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뜻깊은 친필 써가시였거니

민족사에 특기할 4월의 특대사변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알리는 신호탄
수령님 뜻으로 수령님 의지로
장쾌하게 삼천리 하늘가에 울리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

판문점의 그 봄을 평양의 가을로
또다시 겨레가 격동속에 받아안은
9월평양공동선언
가슴 높뛰는 선언의 구절구절에도
수령님 평생의 고귀한 뜻 빛발치여라

수령님 한생 념원하신 조국통일
장군님 평생 열망하신 조국통일
이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명
그이 이 강토에 펼치시는 평화번영의 새 력사
줄기차게 흐르고 흘러
통일의 축포 터져오르리

8천만을 불러 원수님은 가신다
수령님 통일업적 길이 빛내시며
오, 원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수령님과 장군님 그토록 소원하신 통일
자주통일의 새 아침 밝아온다

열렬한 자주통일의지로 민족애와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성스러운 민족적의무로 여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실 굳은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판문점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건립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친필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이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또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끄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온 겨레에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안겨주시였으며 우리민족끼리리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선언들은 자주통일을 위한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북남선언리행이 전면차단되고 북남관계가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평화와 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련이어 내놓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국통일위업이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통일의지,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고성호

통일애국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여 적대와 대결의 랭기만이 감돌던 삼천리강토우에 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되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펼친 공연무대로 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게 되였다.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시고 출연자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여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인 판문점선언은 겨레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삼천리강토와 세계를 진감시킨 판문점에서의 북남수뇌상봉은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11년동안이나 멈춰서있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서 두번째로 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이어 9월평양상봉을 마련하시여 북남관계를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온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놓으시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데 대하여 내외언론들은 《통일에 한발 선뜻 다가선 력사적인 대사변》, 《새 력사를 펼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 《김정은위원장이 조선반도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정세를 이끌고 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 정말 멋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참으로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화해와 평화에로 흐르고 북남관계에서 전환이 일어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드시여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위인적풍모에서 온 겨레는 통일번영할 민족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김성희

《세계의 초점을 모은 력사적인 만남》

세계언론들 특별소식으로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신 소식을 각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트럼프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그와 력사적이고도 전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이것은 력사를 뛰여넘을 세기적인 만남이며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트럼프와 상봉하시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66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력사적인 악수를 하시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은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의 상봉은 세계의 초점을 모은 력사적인 만남이였다, 트럼프는 분단선을 넘어 북조선땅을 밟은 첫 미국현직대통령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신문 《꼭 쏜때피앱》도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랭전의 산물인 군사분계선에서 북조선의 최고지도자를 만난적이 없다, 트럼프대통령이 처음이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도날드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령도자와 악수를 나누고 북조선령내로 걸어들어감으로써 미국의 현직대통령이 처음으로 북조선령토를 밟는 력사가 창조되였다고 전하였으며 신문 《뉴욕 타임스》는 교착상태에 있는 미조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례없는 상봉이였다, 조선전쟁이후 근 70년간 무거운 긴장감이 지배하던 곳에서 조미수뇌들이 상봉한적은 없었다고 평하였다.

인디아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와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수십년간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의 상징이였던 최전방에서 만나 따뜻이 악수를 나누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시였다고 서술하였다.

방글라데슈의 신문들인 《데일리 스타》, 《다카 트리뷴》과 통신, 텔레비죤방송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의 상봉이후 트럼프대통령이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력사적순간》이라고 하면서 이 만남을 《훌륭한 상봉》으로, 《북조선령토에 발을 디딘것은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명이고 커다란 영광》이라고 평가한데 대하여 전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상봉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반도문제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이 《판문점상봉은 김정은각하의 예측불가능한 결단성과 령도력, 승리를 지향하는 천품의 결과이다, 미국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으로 다시 상봉하심으로써 김정은령도자의 권위는 급상승하였다, 판문점상봉은 조미수뇌들사이의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개국수뇌자회의에 쏠려있던 세계의 이목이 순간에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습근평주석의 평양방문,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을 통하여 열흘남짓한 기간 또다시 능란한 외교적수완을 발휘하시였다.》고 찬양한 사실도 보도하였다.

이밖에도 세계의 수많은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우와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기류가 새롭게 감돌고있다. 우리 겨레는 누구나 화해와 단합, 평화의 흐름을 지지환영하고있다. 력사의 이 흐름을 이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담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래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확약하였다.

북남관계문제는 마땅히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문제에서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의존할 리유가 없다. 외세의 눈치를 보다가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결국에는 민족의 리익을 짓밟히게 되고 외세의 배만 불리워주게 된다.

외세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민족자주적립장에서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각방으로 간섭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가 북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라면 외세추종, 외세공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장애물이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에 화해와 단합도 있고 평화번영도 있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나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해치는 사대적근성과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이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면서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민족성원의 당연한 본분이다.

고영식

권력에 환장한 《민생외면정당》

속담에 빈달구지가 굴러가는 소리 더 요란하다고 했다.

남조선에서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민생》을 알아본다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돌아치며 말장난을 부리고있다.

그런데 머리에 든것이 없는 황교안이 떠드는 말장난은 현실과 동떨어진것으로 하여 오히려 그를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알려진것처럼 6월 19일 황교안은 부산지역 중소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로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것은 공정하지 않다,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들은 법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희떱게 놀아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법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국제로동기구의 기본협약과 남조선근로기준법에는 국적을 리유로 외국인로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여있으므로 황교안이 외국인로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발언을 한것은 인권모독, 법위반에 걸리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인권과 법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마저 가지고있지 못한 문외한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한편 민주개혁정당들은 물론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까지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의 외국인로동자혐오발언은 시대착오적인 망언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외국인로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기업들은 《한국》로동자들의 임금도 낮추게 될것이고 그로 하여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것은 외국인로동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마저 부인하는 격이 되여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마찰까지 불러오게 된다고 하면서 초보적인 경제 및 외교관례마저 모르고있는 무식쟁이 황교안이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과연 어떻게 하였지는 모르겠다고 야유하고있다.

《이주로동자차별철폐와 인권로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한국다문화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최하층에서 고된 로동을 하고있는 외국인로동자들을 모독한 인종차별적인 망발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앞에 남조선을 망신시킨 황교안을 법위반으로 처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황교안이 말장난으로 곤욕을 치르는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얼마전 황교안은 청년들과 허물없이 소통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제 아들의 실력이 낮았지만 회사에 쉽게 취직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황교안이 평생 권력기관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는것을 스스로 고백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이를 두고 정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황교안이 박근혜《정권》시절 《부모 잘 만난것도 실력》이라며 특혜를 받았던 정유라와 다를바가 없는 모습으로 청년들의 상처에 생소금을 뿌리고있다, 피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고있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청년무시발언》, 일자리문제로 고민하고있는 청년들에게 가슴아픈 상처만을 남긴 독설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황교안이 《법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며 현 남조선당국자와 1대1회담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민심이 평하는것처럼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도처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정치미숙아》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물고기는 대가리에서부터 썩는다고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독설과 막말을 일삼으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니 그 수하졸개들도 그 본을 따 인민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막무가내로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자한당》원내대표 라경원이 《국회등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침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한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지금 《자한당》은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정계와 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국회》에 들어왔지만 맛있는것만 골라먹겠다고 투정질하는 세살 난 아이처럼 저들의 리속만을 차리겠다고 생떼를 부리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왔다 하지만 아니 돌아온것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직 권력야욕을 추구하면서 정쟁만을 일삼고있는 《자한당》과 같은 반역무리들이 있어 남조선인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픈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역적당의 해체는 막을수 없는 대세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것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 배척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보수의 전통지지기반으로 불리우는 부산지역에서까지 《자한당》반대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부산지역주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자한당》것들을 야유, 조소하며 당장 해체해버릴것을 요구하는 오행시짓기대회와 초불집회를 열고있으며 황교안, 라경원 등 역적당패거리들을 쓰레기로 형상하여 조롱하는 놀이도 벌리고있다.

또한 《자한당》해산명령서에 서명하는 운동도 널리 벌어지고있는데 주민들은 《위헌정당해산명령》이라고 쓴 용지에 저마다 《범죄집단정당》, 《구시대의 유물정당》, 《재활용불가정당》, 《망언제조기정당》 등 역적당에 대한 오명들을 써넣고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는 《자한당》것들이 노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전통적인 보수지지기반으로 되여온 지역들에서까지 이처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역적당을 규탄배격하고있겠는가.

이제 더는 눈뜨고 볼수 없고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역적당의 추악한 망동에 대한 민심의 분노이고 단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다는것은 이 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피부로 절감하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독 《자한당》만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케케묵은 구시대적인 사고와 생존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그 무슨 《제2연평해전의 날》을 계기로 《자한당》것들이 《정부는 안보를 무장해제시켰다.》, 《북방한계선을 지킨 용사들의 정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한것도 그 반증이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녀성당원들이 해괴망측한 엉덩이춤을 춘데 대해 《이것을 보니 당의 힘을 느낀다.》며 박수를 쳐댄 당대표 황교안의 추태만 보아도 《자한당》이 얼마나 혐오와 구토감만을 자아내는 오물당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한당》을 가리켜 《막말제조기, 성추행당 어데 못간다.》, 《자한당에 자멸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하면서 맹비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현실감각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고 썩을대로 썩은 당아닌 《당》이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것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 아닐수 없다.

오물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역스러운 냄새를 풍기며 주변을 오염시키기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낡은 시대의 퇴적물인 《자한당》을 그대로 두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황교안과 같은 인간오작품들이 제아무리 정쟁을 일삼고 대결을 선동하며 지지층결집에 광분해도 민심은 《자한당》에 등을 돌려댄지 오래다.

남조선에서 역적당해체는 더는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

민심에 역행하며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자멸당인 《자한당》이 갈 곳이란 력사의 쓰레기통뿐이다.

안응혁

청년문제에 대한 역도의 황당한 인식을 비난

6월 2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청년문제에 대한 《자한당》대표의 황당한 인식을 비난하였다.

신문은 황교안이 갑자기 이전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청년문제에 관심을 두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문제는 청년문제에 대한 그의 진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조선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수 없는 시대, 기생충이 류행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사회구조를 놔두고 청년들자체의 노력에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있다고 신문은 조소하였다.

이것은 청년들을 해외로 내몰던 박근혜와 같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황교안의 헛발질은 지난 20일 숙명녀자대학교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이날 황교안이 학생들앞에서 학점도 엉터리이고 외국어시험성적도 낮은 자기 아들이 노력하여 큰 기업에 입직하였다고 실례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것은 아버지가 고위직공무원이면 쉽게 좋은 기업에 채용되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결국 황교안의 이번 발언은 그가 청년세대와 얼마나 동떨어져있는가를 보여준다.

청년세대를 말로만 강조할뿐 그는 실지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때문에 분노하며 좌절감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고있다.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청년개인의 탓으로 돌리고있는것이다.

신문은 계속하여 지금 황교안이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자평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그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없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새것과 낡은것

《청년친화정당을 지향해 미래가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얼마전 이남의 《자한당》에서 울려나온 소리이다.

다음해 있게 될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지기반이 제일 취약한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들고나온 구호이다.

지금 이 당의 인물들은 저마다 나서서 《청년들은 불안하고 외롭다.》며 추파를 던지는가 하면 청년들을 《새로운 정치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장미빛청사진도 내흔들고있다.

《자한당》의 거짓말에 너무도 속고 속히운 이남국민들은 이 미사려구들을 들으면서도 침을 뱉고있다. 《자한당》이 어떻게 《청년친화정당》을 만들수 있는가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보기에도 《자한당》은 청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티끌만 한 체면도 없고 또 이 당의 거북한 명칭과 청년이라는 고상한 부름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물과 기름을 아무리 휘저어봐야 한데 섞을수 없는것처럼 청년과 《자한당》은 취향과 성격, 가치추구 등에 있어서 너무 다른 사회의 량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새것을 지향하는 청년들과 부패보수의 상징 《자한당》

인간은 새것을 지향하고 새것의 창조로 사회발전도 이루어진다.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답보이고 퇴행이다.

새것을 지향하는데서는 청년층을 따를 계층이 없다. 그래서 《푸를 청》이 아니던가. 낡은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갈구하고 창조하며 미래에 사는것이 청춘기의 삶이다. 젊음은 곧 생기이고 약동하는 기상이며 미래에로 달려가는 꿈이다.

더 좋은 미래에로!

그것을 꿈과 희망에 담고 달려가고싶은것이 청년들의 심정이여서 최근 이남의 청년들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대표적인 북의 가요도 《달려가자 미래로》이다.

그런데 청년들의 눈에 비낀 《자한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낡고 부패하여 곰팽이냄새가 팍팍 나는 집합체이다.

시대는 변하고 민중은 새것과 발전을 요구하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것을 꽉 부여잡은채 놓을줄 모르는 부패무능한 집단인것이다. 력사는 앞으로 가는데 그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계속 모지름을 쓰고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리석은 몰골이 《자한당》의 흉상이다.

얼마나 새것을 싫어하고 낡은것에 안주하여왔으면 이남민중이 《자한당》을 《수구집단》, 《보수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겠는가.

《자한당》은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동족대결의 어두운 과거를 붙잡고 사는 랭전수구세력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기류가 형성되여있다. 대결이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번영에 살려는것이 이 시대에 사는 온 겨레의 지향이고 의지이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대결시대의 잠에서 아직도 깨여나지 못하고 밤낮 대결타령을 하고 《체제통일》의 개꿈만 꾼다. 온 지구촌이 지지찬동하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도 한사코 부정하고 지어 《폐기》까지 들먹이는 《자한당》이다.

당대표 황교안은 전연의 군초소에 철갑모를 쓰고 나타나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해댔으니 이 땅에서 전쟁도화선이 시시각각 타들어가던 판문점선언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미친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한당》은 자주의 시대적물결에 역행하여 사대와 굴종의 낡은 악습을 오늘도 버리지 못한 시대의 퇴물이다.

저들의 오랜 조상인 리승만의 대미굴종추태를 대물림하며 이어 박근혜《정권》시기에는 지역긴장의 불씨인 《싸드》를 끌어들이고 일본의 치떨리는 군성노예만행을 어물쩍 덮어버리려는 굴욕적인 《합의》도 맺은 《자한당》이다.

몇해전 이남주재 미국대사가 분노한 이남주민에 의해 피격을 당하였을 때 큰일이나 난듯이 외국나가있던 집권자가 서둘러 돌아오고 보수패거리들이 모두 떨쳐나 병문안 한다, 《석고대죄》한다 하며 야단법석을 피운것도 민족망신을 다 시킨 수치스러운 굴종의 추태였다.

초불민심에 의해 《정권》을 빼앗겼어도 사대와 굴종의 악습은 어데 갈데가 없다. 사대굴종의식이 뼈속에까지 스민 《자한당》이여서 하는 짓거리는 하나같이 외세의 앵무새노릇이고 외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역의 짓이다.

《자한당》은 파쑈독재의 오랜 기질도 세기가 바뀌여 근 2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버리지 못하고있다.

민중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를 바란다. 이남사회의 변천과정도 독재타도를 위한 민중투쟁의 과정이였다.

그러나 몸에 배인것이 독재기질이여서 《자한당》은 민중의 삶은 어떻게 되든 저 하나의 권력야욕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민중이 하라는것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아 《국회》마비상태를 몰아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있다.

《자한당》의 전신들은 통치위기에 몰리우면 《색갈론》을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어왔는데 지금 그 후예들이 《좌파독재》니, 《북대변인》이니 하는것을 보면 개꼬리 삼년가도 황모 못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

보는것처럼 《자한당》은 새것을 지향하고 밝은 미래에로 나아가는 세력이 아니라 낡은것을 추구하고 파쑈와 대결의 어둠의 과거에 살려는 부패세력이다.

이런 《자한당》이 어떻게 민주와 통일, 밝은 미래에 살려는 청년들과 친숙한 정당이 될수 있는가.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피우겠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다.

정의를 짓밟는 불의의 세력

청년들은 누구보다 정의를 갈구하며 정의감이 강하다. 정의를 위해서는 피와 살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

하다면 어떤것이 정의인가. 민중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는게 정의이다. 반면에 민중의 의사를 거역하고 리익을 침해하는것이 불의이고 범죄이다.

이남청년들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자한당》은 불의에 산다.

력대로 《자한당》은 민중우에 군림해왔다.

《자한당》의 뇌리에는 민중이 개, 돼지로 각인되여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세월》호대참사는 《자한당》의 선조인 《새누리당》정권의 극도에 이른 인명경시, 반인륜적인 태도와 정책이 빚어낸 끔찍한 참사였다. 수백명의 꽃망울같은 아이들을 려객선과 함께 통채로 바다속에 수장시키고도 강건너 불보듯 한것이 《새누리당》과 그 《정권》이다. 아직은 엄마품에 안겨 재롱을 부릴 꽃망울같은 아이들이 살려달라며 바다속에서 비명을 지르고있을 때 집권자는 주름진 얼굴이나 매만지며 침대에서 무려 7시간동안이나 뒹굴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랭혈한, 악한들이 어디 또 있겠는가.

온 이남민중이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는 광주인민봉기는 얼마나 의로운 민주항쟁이였는가.

그런데도 살인공정부대를 내몰아 피의 살륙전을 펼쳤던 전두환군사깡패집단의 후예들인 《자한당》세력들은 지금도 죄의식이란 꼬물만큼도 없고 오히려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란동》으로 여기면서 《국회》무대에서 광주의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을 심히 모독하는 망언들을 꺼리낌없이 늘어놓아 온 남녘민중의 의분을 사고있다.

민중을 사정없이 짓밟는 《자한당》독재세력의 눈에 청년들이 보일리 만무하다.

그러하기에 모든것을 빼앗긴 이남의 청년들은 《3포세대》를 지나 《5포세대》, 《7포세대》, 나중에는 더 포기할게 없는 《N포세대》로 불리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남을 청년들의 생지옥으로 만든 박근혜는 삶의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보고 《이 땅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진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작질을 내뱉아 청년들의 더욱 큰 분노를 자아냈었다.

청년들의 삶과 미래까지 송두리채 앗아가는 괴물집단인 《자한당》이 청년들을 위해 그 무엇을 해줄듯이 너스레를 떨고있으니 가관이 아닐수 없다.

부패《자한당》은 언제나 청년들의 타도대상이였다

이남의 청년들이 력대로 가장 증오하고 배척해온것은 다름아닌 민주와 정의를 교살하려고 미쳐날뛰여온 《자한당》의 독재세력이였다.

리승만독재《정권》을 꺼꾸러뜨린 4.19의 의거가 청년학생들이 주동이 되여 벌린 반파쑈민주항쟁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당시 최루탄에 맞아죽은 김주렬학생의 시체를 보고 격분한 청년학생들이 《자유를 달라.》, 《동포여 잠을 깨라.》고 웨치며 항쟁의 거리거리를 누볐던 력사의 화폭은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박정희독재《정권》의 친일역적행위인 《한》일회담을 반대배격하여 6.3봉기를 일으킨 항쟁용사들의 맨앞장에도 이남의 청년들이 서있었다.

198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광주인민봉기때에도 광주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청년들이 시민들의 앞장에 서서 교형리들을 전률케 했다.

지금도 광주의 무등산에서 고이 잠들고있는 민주화투쟁의 영령들은 대다수가 20대, 30대의 청년들이다. 그들이 젊음의 피를 끓여 독재타도의 항쟁의 바다를 만들었었다.

세기는 바뀌였지만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한 이남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부패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내리지 않고있다.

나어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어둠의 세상을 밝힌 초불바다에 의해 박근혜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자한당》세력은 거리바닥에 내몰리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였다.

지금 청년들의 의식에는 《자한당》이라는게 없다.

대학생진보련합, 청년련대를 비롯한 이남의 청년단체들은 《5.18학살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을 처벌하자.》,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자한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나 그들에게서 배척을 당해왔으면 《자한당》이 《청년친화정당》을 만든다는 희한한 구상까지 하였겠는가.

그러나 꿈도 바랄 꿈을 꾸어야 한다.

이남민중의 아들딸들인 청년들은 단연코 《자한당》부패세력을 부정하고있다.

민심을 잃고 청년들의 배척까지 당하고있는 《자한당》에는 미래가 없다. 그들을 기다리는것은 파멸의 나락뿐이다.

재도이췰란드동포
유금진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서 (2)

새 조선의 첫 우표들

우리는 조선에서 개시된 근대적인 우편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대를 지나 해방전 유격근거지들에서 진행된 통신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돌아보았다. 유격근거지들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안에 통신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조국해방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통신활동을 맡아하였다고 한다. 9살 나어린 몸으로 조직에서 받은 통신련락임무를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장렬하게 희생된 김금순소녀의 조각상은 이 시기 진행된 통신활동의 간고성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를 반영한 우표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진정한 조선우표의 뿌리는 항일의 빛나는 전통에 있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새 조선의 첫 우표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1946년 3월 12일 태여난 조선의 첫 우표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깃들어있었다.

해방의 환희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우표를 새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새 조선의 첫 우표들이 나왔을 때에는 어리신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우표들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조선우표를 가지고 서신거래를 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우표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 소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조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있는데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조선인민이 얼마나 근면하고 강직한 인민인가 하는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간곡한 교시를 하시였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비록 작은 우표 두종이 나왔지만 머지않아 조선을 소개하는 큼직큼직한 신문, 화보, 잡지들이 나올것이라고, 첫 우표를 만든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도안도 더 잘하고 인쇄기술도 높여 해방된 조선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우표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표발행과 그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들이 우리 우표를 가지고 해방의 환희와 서로의 건국열의를 마음껏 편지로 나눌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으며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자주 출장을 가시는 아버님께 몸건강히 빨리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다고 말씀하시였다는 강사의 해설은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그후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이 발행되였다고 한다. 조국해방 1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 발행된 기념우표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기훈장》우표를 비롯한 새 조국건설시기에 발행된 우표들, 당시 우표발행기구들과 새 조선의 우표를 찍어낸 인쇄소들에 대한 해설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기 이룩된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과정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지명과 그 유래

독 도

독도는 세나라시기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이라고 불리웠고 고려시기에는 우산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독도(獨島)라고 불리웠다.

우산도는 고려이전시기부터 불리워진것으로서 울진현(경상북도)의 고구려때 이름인 우진야현에서 기원된것이다.

우산도의 《우》자는 우진야의 《우》와 같은 음옮김이며 《산》자는 뫼라는 《산》자의 뜻옮김으로서 웃쪽의 산이라는 뜻이다. 《고려사》에도 《울진현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라고 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초기 독도이름인 삼봉도는 세개의 봉우리로 된 섬이라는 뜻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봉건왕조실록》, 《만기요람》을 비롯한 여러 옛 기록들에 보이는 이 이름은 15세기초이후 봉건정부가 섬을 일시적으로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내놓고 경차관을 파견하여 직접 조사하면서 독도에 가까이 갔을 때 바라보니 량쪽에 있는 두개의 큰 바위섬(동도와 서도)과 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 하나가 보인데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삼봉도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에 생긴것이다.

18세기말부터 부른 가지도의 《가지》는 《물개》라는 말로서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증보문헌비고》의 우산도라는 설명에는 이 섬의 바다가운데 큰 짐승이 있는데 … 그 짐승이름을 《가지》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짐승을 현재 물개라고 하므로 결국 가지도는 우리 선조들이 독도에서 가지 즉 물개를 많이 잡으면서 부른데서 나온 독도의 별칭이다.

19세기말에 이 섬을 《독도》라고 불렀다. 독도의 《독》자는 경상도, 전라도 지방사투리로서 돌을 《독》으로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독섬이라는 이름은 《돌로 된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독도라고 하였다.

19세기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봉건정부가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자 경상도, 전라도주민들이 울릉도에 많이 이주하여 살게 되고 계절에 따라 독도에 가서 막을 치고 장기간 물고기잡이를 하게 되면서 돌로 된 이 섬을 보고 부른데서도 유래되였다.

즉 독도란 말도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활동과정에 나온 이름이다. 독도를 한자로는 현재 홀로 《독》자를 쓰고있는데 이것은 조선반도 동쪽 한끝에 홀로 떨어져있는 섬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도는 그 여러가지 지명유래를 보아도 명실공히 조선의 신성한 령토임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양덕군안의 이름난 온천들

공화국의 각지에는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들이 많다. 양덕군의 온천들도 이름난 온천들중의 하나이다.

양덕지구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돈이 극히 적은 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작용과 치료효능이 높다. 석탕온천만 보아도 그렇다.

옛 문헌에는 현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 가느라면 세 곳에서 나오는 온천들이 있는데 이 온천들은 심히 뜨겁다고 기록되여있다. 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 온천이 돌틈에서 샘솟는다고 하여 《돌탕》이라고 하였고 그후 《석탕》이라는 말을 쓰게 되였다. 지난 시기 이 지방 주민들은 일정한 형태의 욕조를 만들고 병을 치료하였다고 전해오고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병치료에 널리 써왔다고 한다. 그리고 석탕온천의 높은 열은 오래전부터 약초를 쪄내는데 리용되였다고 한다.

양덕지구에는 또한 양덕온천이 있다. 이곳에는 소탕지와 대탕지라고 부르는 2개의 용출지역이 있는데 소탕지는 읍에 있고 대탕지는 양덕역에서 2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양덕온천도 옛날부터 리용되여왔으며 소탕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리용하여왔다고 《소경탕》이라고 불리웠다.

현재 양덕온천은 고온천이며 단순규토, 류황, 불소—약알카리성온천으로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류황천중의 하나이다.

양덕지구 온천들의 성분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적응증을 본다면 만성습진, 건선 및 태선, 각종 관절염, 외상 및 수술후유증, 신경통 및 신경염, 만성위염, 통풍, 비만, 당뇨병 등이다.

최근 양덕군에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의학연구원 환경위생연구소 실장 리혜경

7월의 절기와 민속

7월은 우리 나라에서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이며 대서는 7월 23일이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소서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논과 밭의 김을 여러번 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였다.

대서를 전후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이 시기에 풀을 베여 쌓아두면 풀더미가 푹 썩어 다음해농사에 좋은 유기질비료로 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적특성에 맞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삼복철음식들을 들수 있다.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중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삼복기간은 초복과 중복사이가 10일, 중복과 말복사이가 10일이다. 올해와 같이 중복과 말복사이가 20일 되는 해도 있는데 이러한 해의 삼복을 월복이라고 한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팥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특히 단고기장은 삼복철에 우리 겨레가 즐겨먹은 특색있는 민족음식이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푹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

더위로 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식욕을 돋구고 영양을 보충하며 온갖 병을 예방한다는 삼복철의 단고기장은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졌다.

이러한 단고기장뿐아니라 초계탕과 팥죽 등도 삼복철 건강에 매우 좋은 전통적인 보양음식이다.

본사기자

민족음료 막걸리

《막걸리》란 말은 문자그대로 마구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다. 막걸리를 탁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맑지 못하고 흐린 술이라는 뜻이다.

막걸리는 세나라시기에는 묘주, 고려시기에는 박주, 백주라고 하였으며 고려후반기부터 탁주라고 불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기록인 《태종실록》에 막걸리라는 표현이 처음 쓰이였다.

예로부터 농민들은 무더운 여름철 농사일의 쉴참이면 주정이 낮고 시원하며 술이라기보다 음료로 많이 리용된 막걸리를 즐겨 마시군 하였다.

이로부터 막걸리를 《농두》, 《농탁》이라고도 불렀고 그릇에 희뿌연 액이 가득찼다고 하여 탁배기라고도 하였다.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금탄리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고대시기의 유적들에서 술잔이나 술항아리로 보아지는 질그릇들이 발견된 사실은 막걸리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막걸리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만성위염이나 소화불량증, 동맥경화증, 만성관절염을 비롯한 질병들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가 클뿐아니라 미용효과도 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특히 막걸리를 만들 때 당뇨병과 암, 로화와 각종 전염병을 억제하는 필수불포화기름산인 리놀렌산이 생긴다는것이 증명되였다.

리혜원

사화

도끼바위와 화살바위 (3)

글 지홍길, 전종섭, 그림 채태성

세월은 살처럼 흘러 거의 1년이 되여오는 동안에 차차 활쏘기묘리를 터득한 한백호도 드디여 바위에 화살을 쏘아박게 되였다.

그날 최도령은 기뻐하는 한백호를 오히려 엄하게 나무라는것이였다.

《아직 기뻐하기는 이른가보오. 이제 무예를 닦는데서 겨우 첫걸음마를 뗀데 불과하니까.》

그 기간 활을 어찌나 많이 쏘았던지 바위중턱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들은 다음에는 자루가 긴 커다란 도끼를 들고 활을 쏘던 절벽바위를 에돌아 더우로 올라갔다. 앞에는 거의 산봉우리만 한 바위가 막아섰다.

《운학도사는 어느 편이 무거운 병장기를 〈가볍게〉 들고 손세를 더 잘 쓰는가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셨소. 오늘부터 울퉁불퉁한 이 바위를 곧추 깎아내는 연습을 하기오.》

그날부터 두 젊은이는 땀을 흘리며 두발이나 되는 도끼자루를 쥐고 바위를 쿡쿡 찍었다.

최도령이 도끼질을 하면 바위가 뚝뚝 떨어져나갔다. 그러나 한백호가 도끼를 들어 쿡 내리찍으면 푸른 불꽃이 벙끗 일면서 탕탕 튕겨나기만 하였다.

도끼자루를 쥔 손이 너무 울려 까딱 잘못하면 손에서 도끼가 빠질것 같았다. 허나 하루, 이틀, 닷새… 다섯달이 지나서부터는 나무를 패듯 한번 내리치면 바위가 푹푹 깎아져나갔다. 어느덧 산봉우리만 하던 바위가 깎이고 깎여 초대처럼 가늘어졌다.

도끼훈련이 끝나자 최도령은 《래일은 상매봉까지 달리기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백호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스승으로 섬기는 최도령의 얼굴이 눈에 띄게 축가는것이였다.

어떤 때는 훈련을 주다가도 땀을 비오듯이 흘리였고 밤이면 그가 든 초막에서 《끙끙》 하는 신음소리까지 들리군 하였다.

그래서 한백호가 이모저모로 도움을 주자고 하면 맵짜게 거절하였고 때로는 성을 내기까지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나서 자기와 함께 풍덩소에 뛰여들어 목욕이라도 하였으면 좋으련만 언제 보나 목깃까지 꼭 매고서 조금도 곁을 주지 않았다. 밤에는 자기가 곁에서 간호를 하겠대도 절대로 못하게 하였다.

어째서 자기와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지? 이젠 내가 산에 들어온지도 2년이 지났는데 동거동락을 해야 할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스승으로 섬긴 이상 그의 명을 거절할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최도령의 고마운 성의를 봐서라도 그의 몸을 추세워주어야 한다.)

한백호는 상매봉까지 달려가고 달려오면서도 줄창 그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백호는 숲속길을 걷다가 화닥닥 달아나는 사슴 한마리를 보게 되였다. 싯누런 바탕에 흰점이 박힌 큼직한 사슴이였다.

최도령이 늘 칠보산사슴이라고 자랑하던것이다. 그는 최도령을 추세울 생각이 나서 사슴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사슴은 푹 앞으로 거꾸러졌다.

한백호는 죽은 사슴을 메고 싱글벙글 웃으며 초막뜨락에 들어섰다. 그런데 반가와할줄 알았던 최도령이 얼굴이 새파래서 따지듯 물었다.

《한도령, 사슴을 겨누고 화살을 날릴 때 가슴이 떨리지 않았소? 사람들이 칠보산의 나무 한그루나 짐승 한마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못했소?》

《그까짓 짐승 한마리가 뭐요, 아무려면 사람의 몸에 비하겠소.》

한백호도 이제는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공과 사를 가를줄 모르는 그대는 장수의 자격이 없소. 그럴바엔 차라리 내려가는게 좋겠소.》

최도령은 성이 나서 엄하게 꾸짖고 초막으로 들어갔다.

《너무하오. 좋소, 나도 결패있는 사나이요.》

…한백호는 숲속으로 들어가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여 앉아 풀떡거렸다.

성이 조금 가라앉자 어쩐지 구슬픈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도령에게서 받은 수모가 내려가지 않았던것이다.

(흥, 장수자격이 없으니 집으로 가라고?…)

조용한 숲속에 홀로 있으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장수로 키우려고 애쓰던 일이며 그때 아버지한테서 전설처럼 들어오던 운학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럴 때 운학도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솔곳이 든 단잠은 한백호의 눈앞에 꿈을 실어왔다.

하얀 수염발을 길게 드리운 풍채좋은 로인이 흰두루마기를 바람에 날리며 참대같이 곧은 지팽이를 짚고 서있었다.

로인은 자기를 운학도사라고 소개하고나서 《너 어이하여 이 밤에 집없는 무인산천에 홀로 있는고?》 하고 물었다.

꿈결에도 그립던 운학도사를 만난 한백호는 너무도 기뻐 그의 앞에 엎드려 오열을 터뜨렸다.

《운학도사님, 소인은 도사님을 만나려고…》

《다 알고있느니라. 어서 묻는 말이나 대답하라.》

《소인은 한 친구를 스승으로 삼고 무술을 닦았사온데 사슴을 잡았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못되게 놀기에 초막을 뛰쳐나왔소이다. 장수자격이 없다고 내려가라 하니 이보다 더 억울함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대는 잘못 생각하고있도다. 그대는 이 나라의 물한방울, 풀 한포기, 짐승 한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모르고있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장수가 있고 병졸이 있는것이거늘 그걸 모르는 장수에게 보검을 쥐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용맹을 키운들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대가 아무리 무술을 닦아도 장수의 구실을 못하느니라.》

《도사님! 제가 그만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한백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쳐들었을 때는 이미 운학도사가 사라진 뒤였다. 꿈에서 깨여난 한백호는 자기를 깊이깊이 뉘우쳤다.

자기는 그저 스승인 최도령의 몸만 걱정하던 나머지 사슴 한마리쯤은 하찮게 여기였던것이다.

그는 초막을 향해 발자국을 옮겨놓고있었다. 이때 초막앞에서 이리들의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섬찍해진 한백호가 한달음에 급히 달려가보니 최도령이 삼단같은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달려드는 이리들을 맨손으로 힘겹게 막아내고있었다.

《아! 최도령…》

한백호는 씽 달려가며 이리를 발길로 차던지기도 하고 무쇠같은 주먹으로 쳐갈기기도 하였다. 이리떼를 다 물리치고난 후 한백호는 최도령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날 용서해주오.… 난 장수의 자격이 없소.》

최도령은 옷이 찢긴 한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너그럽게 말하였다.

《일어나오. 난 그대가 반드시 돌아올줄 믿었소. 어서 초막으로 들어가오.》

한백호가 초막에 들어가보니 뜨끈뜨끈한 구들 한쪽에 저녁상이 차려져있었다.

그날밤 한백호는 머리태를 풀어헤치고 이리와 싸우던 최도령의 모습이 줄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옥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혹 그가 녀자가 아닐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하였다. 했으나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어 이내 머리속에서 털어버리고말았다.

악수와 건강

흔히 사람들은 악수가 건강에 미치는 후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전염병의 발생위험성을 줄이자면 악수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악수를 세게 하는 경우 많은 세균에 감염될수 있다고 한다.

학자들은 그 원인이 육체의 접촉면적에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만일 다른 인사법을 받아들이는 경우 전염병의 발생위험을 훨씬 줄일수 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오그랑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다.

《너 오늘 몸을 씻지 않았구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비누가 마른채로 있지 않니.》

다음날 어머니가 또 아들을 추궁했다.

《넌 또 목욕을 하지 않았구나.》

《했어요. 보세요, 비누가 젖어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건은 왜 마른채로 있느냐?》

그 다음날이였다.

《어머니, 난 오늘 목욕을 했어요.》

《거짓말, 세면장 욕조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구 다음번엔 욕조물을 모두 뽑아버리지 말아.》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